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 VIP 리포트

## ■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

-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

-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 .....	2
3. 시사점 .....	7
<b>【별첨】</b> .....	9
<b>【HRI 경제 통계】</b> .....	10

## &lt; 요약 &gt;

## 개요

-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 '03년 65.1%에서 '12년 71.8%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 형태로 변화('11년 OECD 평균 83.8%)
-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우려 제기

##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

첫째, '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 감소해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

-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04년 37.0%로 급증했으나 비정규직 범안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 2012년 33.3% 수준

둘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중위소득의 150% 이상 일자리 비중은 '03년 29.5%에서 '12년 25.7%로 감소
- 반면 중위소득의 50% 미만 일자리 비중은 '03년 10.5%에서 '12년 14.0%로 증가

셋째, 소득이 낮으면서 고용 안정성도 낮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지난 10년간 2.8%p 증가한 반면 소득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지난 10년간 2.9%p 감소

넷째,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 과다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10.3%p 감소, 반면 과소근로 일자리 비중은 13.6%p 증가
-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안정성 하락 우려

다섯째, 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및 저소득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 전체 일자리 중 고령층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지난 10년간 3.4%p 증가했으며, 고령층 저소득 일자리 비중도 지난 10년간 2.6%p 증가

## 시사점

첫째, 비정규직·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교육 확대, 취업 알선 강화 등의 정책 지원 필요

둘째,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고부가 일자리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

셋째, 고령자 취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등 고령 인구의 안정적 적정 소득 확보 대책 필요

## 1. 개요

- (연구배경) 최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경제의 저성장, 산출과 고용의 연결고리 약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고용률이 63~64% 수준에 정체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sup>1)</sup>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일자리 238만개 창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sup>2)</sup>
  
- (연구목적)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 즉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질적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한 경제 내에서 일자리는 양(Quantity)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Quality)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현재 국내 일자리의 상황을 보면, 일자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부가가치 일자리 증가, 근로빈곤층<sup>3)</sup> 등장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연구방법)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안정성, 소득수준, 연령, 근로시간 등을 바탕으로 2003~2012년간 일자리의 질적 구조 변화를 분석
  - 근로자의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고용 안정성을 평가
  -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저소득,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은 중소득,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고소득 일자리로 분류
  - 근로시간은 주당 36시간 미만은 과소근로,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은 적정근로, 50시간 이상은 과다근로 일자리로 분류
  - 연령은 15세부터 55세 이상까지 10세를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

1) 고용률 : 2003년 63.0%, 2012년 64.2%

2) ‘고용노동부 2013년 업무보고(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3.29.)’ 참조

3) 근로의욕이 있고, 실제로 일정 기간 중 근로경험이 있으나,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 집단

## 2.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

### 1)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현황

- 2003~2012년 사이 국내 일자리는 2,214만개에서 2,468만개로 약 254만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일자리 중 임금근로자는 2003년 1,440명에서 2012년 1,771명으로 약 331만명 증가한 반면,
  - 자영업자<sup>4)</sup>의 경우 2003년 774만명에서 2012년 697만명으로 오히려 약 77만명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2003년 전체 취업자 대비 65.1%이었던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2년 71.8%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 34.9%에서 28.2%로 감소함
- 임금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국내 일자리 구조가 점차 선진국 형태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
  - 201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주요국들의 임금근로자 비중의 경우 미국(93.0%), 캐나다(91.0%), 독일(88.3%), 일본(88.1%) 등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인 83.8%에 비해 낮은 71.8% 수준이나 임금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 형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추이 >

(단위: %, 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금근로자	14,402 (65.1)	14,894 (66.0)	15,185 (66.4)	15,551 (67.2)	15,970 (68.2)	16,206 (68.7)	16,454 (70.0)	16,971 (71.2)	17,397 (71.8)	17,712 (71.8)
자영업자	7,736 (34.9)	7,663 (34.0)	7,671 (33.6)	7,600 (32.8)	7,463 (31.8)	7,371 (31.3)	7,052 (30.0)	6,858 (28.8)	6,847 (28.2)	6,969 (28.2)
전체 취업자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자료 : 통계청

- 주 : 1) 자영업자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2) 괄호안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4) 자영업자의 분류 기준은 OECD 분류 기준(자영업자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을 따름. 통계청의 경우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 2)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

### 첫째,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반적인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

- 근로계약 측면에서 볼 경우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
-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의 경우 2003년 32.6%에서 2012년 33.3%로 소폭 증가한 반면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2003년 67.4%에서 2012년에는 66.7%로 소폭 감소
- 다만 2004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5)</sup>

< 근로계약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규직	67.4	63.0	63.4	64.5	64.1	66.2	65.1	66.7	65.8	66.7
비정규직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둘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반면 소득 수준별로 볼 경우 임금근로자 중 고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저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증가해 소득 측면에서 일자리 구조가 악화
-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의 경우 2003년 29.5%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25.7%로 감소
- 반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2003년 10.5%에서 2012년 14.0%로 증가

< 소득분류별 일자리 비중 변화 추이(%)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소득	29.5	27.6	29.7	22.8	24.3	27.0	27.8	28.3	25.0	25.7
중소득	60.0	59.6	58.3	61.9	61.2	61.4	59.6	59.5	61.0	60.3
저소득	10.5	12.8	12.0	15.3	14.4	11.6	12.5	12.2	14.1	1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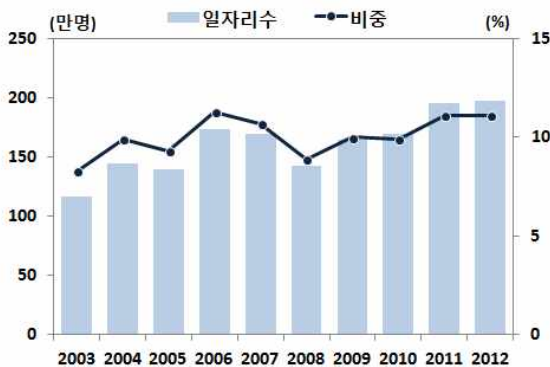
주 : 고소득은 중위소득의 150% 이상, 중소득은 50% 이상 150% 미만, 저소득은 50% 미만을 의미

5)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정규직 비중 증가 요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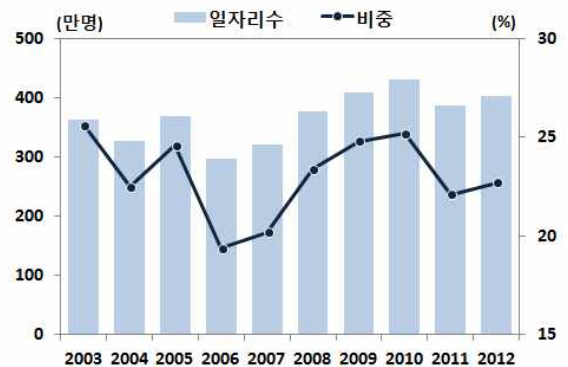
셋째, 소득이 낮으면서 고용 안정성도 낮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분류한 결과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모두 낮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
  - 비정규직이면서 동시에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2003년 117만개에서 2012년 198만개로 지난 10년간 약 81만개 증가
  - 전체 일자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3%였으나 2012년 11.1%로 2.8%p 증가함
- 반면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나 고용 안정성은 낮지만 소득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일자리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정규직이고 중위소득의 150%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는 2003년 362만개에서 2012년 403만개로 41만개 증가하였으나,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2003년 25.6%에서 2012년 22.7%로 - 2.9%p 감소
  - 또한 비정규직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 역시 2003년 3.9%에서 2012년 3.0%로 - 0.9%p 감소해 국내 일자리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sup>6)</sup>

< 비정규직, 저소득 일자리 추이 >



< 정규직, 고소득 일자리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저소득은 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고소득은 150% 이상을 의미  
 2) 정규직,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 비중의 경우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으로 인해 2008~2010년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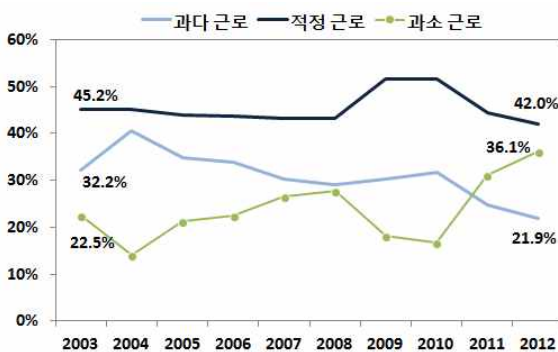
6) 고용 안정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일자리 비중 변화는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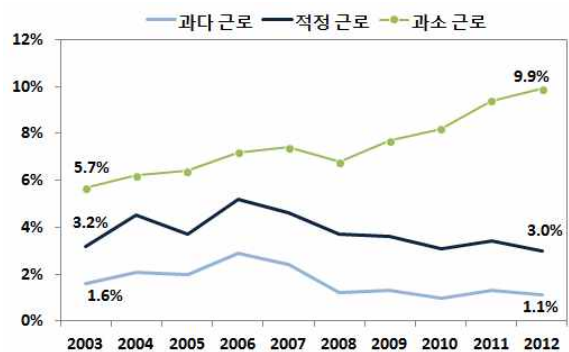
**넷째,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 근로시간 측면에서 볼 경우 국내 일자리의 전반적인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
  -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인 과다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2003년 32.2%에서 2012년 21.9%로 -10.3%p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인 적정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45.3%에서 42.1%로 -3.2%p 감소
  - 반면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과소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2003년 22.5%에서 36.1%로 13.6%p 증가
- 소득 수준별로는 모든 소득 수준에서 과소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 중에서 과소근로 일자리 비중이 증가
  -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 중에서 과소근로 일자리 비중은 2003년 5.7%에서 2012년 9.9%로 4.2%p 증가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득 감소, 근로기회 축소, 고용 안정성 하락 등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근로시간별 일자리 비중 추이 >



< 저소득 일자리의 근로시간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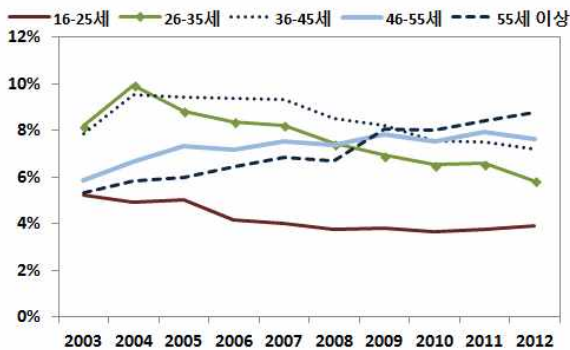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과다근로는 주당 50시간 이상, 적정근로는 주당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과소근로는 주당 36시간 미만을 의미

7)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78.3%에서 2012년 79.9%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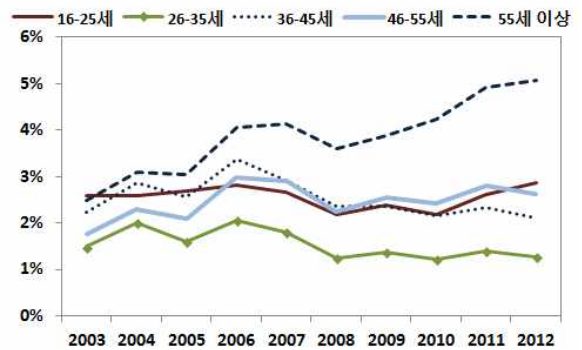
**다섯째, 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및 저소득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 전반적인 고용 안정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중 55세 이상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근로계약 측면에서 볼 경우 2003년 대비 2012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sup>8)</sup>
  - 그러나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03년 5.4%에서 2012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5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저소득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일자리의 질은 고용 불안정성 확대와 더불어 소득 측면에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 일자리 중 저소득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03년 2.5%에서 2012년 5.1%로 급격히 증가
  - 이는 고령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불안과 생활수준 하락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
- 한편 26~35세의 청년층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고령화와 청년층 실업 문제가 일자리 구조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별첨 참조)

< 비정규직 일자리의 연령별 비중 추이 >



< 저소득 일자리의 연령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비정규직 일자리의 연령별 비중은 전체 일자리 중 각 연령층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2) 저소득 일자리란 소득 중위값 50% 미만의 일자리를 의미

8) 2004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국내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시사점

첫째,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교육 확대, 취업알선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비정규직·저소득 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기술, 고령층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함
  - 고령층 혹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 또한 일자리를 상실했을 경우 재취업이나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 교육 체계,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을 강화할 필요

둘째, 근본적으로는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고용 안정성과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비탄력적인 고용시장, 일자리 미스매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나 국내 경제의 투자 부진이 근본적인 원인임
-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지식형 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 일자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함

셋째, 고령층 취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노인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고령 인구가 안정적으로 적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사회복지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 인구가 지속적인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에서의 고령인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고령 인구의 취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거나,
  - 공공 또는 민간사업에 고령인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고령층 근로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HRI**

전해영 선임연구원 (haloween@hri.co.kr, 02-2072-6241)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오준범 연구원 (jbdevil@hri.co.kr, 02-2072-6247)

**【별 첨】**

< 고용 안정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

(단위: %, 천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 규 직	고소득	3,623 (25.6)	3,280 (22.5)	3,689 (24.6)	2,978 (19.4)	3,215 (20.2)	3,775 (23.4)	4,086 (24.8)	4,303 (25.2)	3,863 (22.1)	4,034 (22.7)
	중소득	5,599 (39.6)	5,482 (37.6)	5,394 (36.0)	6,312 (41.1)	6,368 (40.1)	6,440 (40.0)	6,221 (37.7)	6,674 (39.1)	7,142 (40.8)	7,291 (41.1)
	저소득	321 (2.3)	428 (2.9)	403 (2.7)	605 (3.9)	597 (3.8)	444 (2.8)	419 (2.5)	386 (2.3)	510 (2.9)	498 (2.8)
비 정 규 직	고소득	549 (3.9)	738 (5.1)	761 (5.1)	522 (3.4)	649 (4.1)	574 (3.6)	502 (3.0)	527 (3.1)	507 (2.9)	528 (3.0)
	중소득	2,886 (20.4)	3,211 (22.0)	3,330 (22.2)	3,196 (20.8)	3,359 (21.1)	3,445 (21.4)	3,604 (21.9)	3,463 (20.3)	3,536 (20.2)	3,407 (19.2)
	저소득	1,171 (8.3)	1,445 (9.9)	1,392 (9.3)	1,739 (11.3)	1,694 (10.7)	1,426 (8.9)	1,648 (10.0)	1,695 (9.9)	1,952 (11.1)	1,976 (11.1)
전 체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괄호 안은 전체 일자리 중 각 항목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고용 형태 및 연령별 일자리 비중 추이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 규 직	16-25세	7.96	7.33	6.38	5.76	5.17	4.61	4.26	3.91	3.95	4.15
	26-35세	24.04	21.82	21.94	22.28	21.40	21.64	21.10	20.94	20.51	20.40
	36-45세	19.92	18.65	18.92	19.26	19.34	20.43	20.10	20.56	19.93	19.60
	46-55세	11.26	11.18	11.86	12.86	13.50	14.54	14.68	15.65	15.33	15.90
	55세이상	4.25	4.04	4.27	4.29	4.69	4.97	4.94	5.59	6.04	6.63
비 정 규 직	16-25세	5.24	4.94	5.02	4.19	3.99	3.74	3.82	3.68	3.74	3.89
	26-35세	8.20	9.97	8.85	8.39	8.24	7.45	6.95	6.53	6.58	5.84
	36-45세	7.88	9.54	9.45	9.38	9.31	8.53	8.22	7.56	7.51	7.18
	46-55세	5.88	6.69	7.34	7.16	7.52	7.38	7.86	7.54	7.96	7.63
	55세이상	5.35	5.84	5.97	6.43	6.84	6.70	8.08	8.04	8.44	8.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3	3.6	2.8	2.3	1.5	1.5	2.0	3.1	
	민간소비(%)	1.1	2.3	1.6	1.1	1.6	2.8	1.8	2.5	
	건설투자(%)	-2.1	-5.0	1.5	-2.1	-0.2	-4.1	-1.5	2.2	
	설비투자(%)	-3.3	3.7	8.6	-3.5	-6.5	-5.1	-1.8	4.8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114	261	26	112	146	149	433	285
		무역수지(억 \$)	92	308	12	97	75	100	285	259
	수출(억 \$)	1,404	5,552	1,349	1,402	1,331	1,400	5,481	-	
		증감률(%)	(9.0)	(19.0)	(3.0)	(-1.7)	(-5.7)	(-0.3)	(-1.3)	(5.6)
		수입(억 \$)	1,313	5,244	1,336	1,305	1,256	1,299	5,196	-
증감률(%)	(13.4)	(23.3)	(7.8)	(-2.8)	(-6.9)	(-1.0)	(-0.9)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4.0	3.0	2.4	1.6	1.7	2.2	2.5	
실업률(%)		2.9	3.4	3.8	3.3	3.0	2.8	3.2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44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